‘노사 합의’ 한국 GM…정부와 협상 2R

군산공장 680명 고용 보장…부평1·창원 신차배정 조율

산은, 자금지원 조건 감자·출자전환 제안…‘산 넘어 산’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예고했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 및 정부와 미국 GM 본사의 신차 배정 및 자금지원과 관련된 협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국 면했다”=한국GM 노사는 23일 오후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제너럴 모터스(GM) 본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임단협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었다.

양측은 이날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애초 거론됐던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는 한편,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평 1공장의 경우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내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융통 숨통…협력업체 안도=이번 노사 합의로 한국GM은 당장 급한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이달에만 최소 9000억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협력사에 줘야 하는 한 달 평균 부품대금(약 3000억원), 2017년도 성과급 지급분 720억(450만원×1만6000명), 일반직 직원 급여(25일 지급) 500억원, 희망퇴직을 신청한 2600명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위로금 등 대략 9220억원에 이른다.

한국GM은 노사 간 갈등이 70여 일 만에 봉합됨에 따라 GM 본사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자금 지원을 받아 당장 시급한 유동성 부족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다. GM은 이번 노사 합의를 계기로 남은 차입금도 만기 연장을 계속해주기로 했다.

◇GM-정부 간 협상 2라운드 시작=‘산 넘어 산’. 노사 간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GM 본사와 산업은행 및 정부와의 자금 지원 협상 결과가 한국 GM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안도하기는 이르다.

앞서 GM 본사는 임단협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국GM의 본사 전체 차입금 27억 달러(약 3조원)를 출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평·창원공장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GM 지분(17.02%) 만큼인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GM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제안한 상태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비토권’과 같은 GM 견제 권한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통해 GM 지분을 85% 밑으로 묶어두려는 게 산은의 구상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보통주 지분 15% 이상이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GM의 생산시설을 한국에 묶어둘 방책이 된다. 그러나 GM은 차등감자 대신, 신규 투자와 관련, GM이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를 해 차등감자 없이도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은은 신규 투자 방식이 같아야 한다며 양쪽 다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GM은 오는 27일까지 산은에 한국GM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다만, 지난 20일 나온 한국GM 경영 실사 중간보고서에는 GM 본사가 공언한 한국GM 지원 계획과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노사의 자구안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GM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조건부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한 데다 중간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다음 달 초 실사 종결에 앞서 27일까지 한국GM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쾌적한 여름이불 장만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고객이 모달 소재의 여름이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점은 다음달 3일까지 여름이불 초특가전을 열고 최대 7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전남 노후 인프라 개선하면 경제 파급효과 상승”

대한건설협 전남도회 세미나…경제 성장 도움·일자리 창출

전남지역 교통·생활·정주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 삶의 질과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건설협회 전남도회 주최로 열린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인프라 투자 방향 세미나’에서 전남지역 내 노후 시설물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지역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도로 포장률이 76.5%로 전국 평균인 85.3%에 비해 낮은 교통 인프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주 인프라, 전국 최저 수준인 지역 내 상하수도 보급률(81.4%)과 전국 평균(10.9%)을 웃도는 누수율(26.1%) 등 지역 내 열악한 생활 인프라 현황을 진단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침체된 지역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방향과 사업 등을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또 생활 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 수송 인프라 등 전남지역의 핵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률(4.7%포인트), 가계소득(1.5조원), 민간 소비(1.1조원) 증가와 4만2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남도민 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3%는 인프라 투자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4.11 (−2.22)	↑ 금리 (국고채 3년) 2.24% (+0.04)
↓ 코스닥 879.02 (−10.15)	↑ 환율 (USD) 1069.00원 (+1.70)

광주은행 ‘광주·전남愛카드’ 1만좌 돌파

출시 2개월만에…이용금액 적립 소외계층 기부

지난 2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에서 출시한 ‘광주·전남愛사랑카드’가 2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좌를 돌파했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는 이용금액의 0.5%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광주·전남 지역의 소외계층에 기부해 고향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카드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광주·전남愛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愛사랑 아너스(Honors)카드’ 3종이 출시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기부문화에도 동참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는 골프장 이용금액 10만원당 5000 포인트, 패밀리레스토랑·커피전문점·온라인쇼핑·예매·교통 업종 이용 시 10% 포인트가 적립돼 월 최대 3만 포인트 적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린카드 멤버십 서비스가 탑재돼 있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愛사랑 아너스(Honors)카드’는 바우처서비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 받고, 2018년 특별 이벤트로 호텔라운지 무료음료와 호텔 사우나 무료입장, KTX역사 무료주차 서비스까지 추가 제공받을 수 있어 아너스(Honors)카드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5~7월 아파트 3551가구 입주

나주 혁신도시 등 입지 장점

광주·전남지역의 5~7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7월 광주·전남에서 아파트 3551가구가 입주자를 맞는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 여수·순천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들이’에 나설 예정이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오는 6월까지 642가구가 주인을 맞는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KTX역 모아엘가가 6월 341가구 입주를 시작하고 남구 주월동 남해오네뜨 301가구도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나주·여수·순천 등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시작한다.

지역별로는 5월에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대방엘리움 2차 C3블록(414가구)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대방엘리움2차 B16블록(351가구) ▲여수 여수엑스포 시티프라디움 3-1,2블록(352가구) 등이 이사를 시작하고 6월에는 ▲나주 송월동 달빛마을 세움트리 아파트(266가구) ▲해남 한아름골드 아파트(60가구) 등이 입주한다.

순천 신대지구에서는 7월 1367가구가 이사에 들어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